

# 1 도시개요

지표로 본 서울 변천 (2010년 개정판) : 주요 통계와 동향

# 목차

<b>1 도시개요</b> .....	<b>1</b>
<b>1.1 인구개괄</b> .....	<b>1</b>
1.1.1 인구 증감.....	4
1.1.2 남녀 성비.....	5
1.1.3 연령별 인구구성.....	6
1.1.4 부양비.....	7
<b>1.2 인구의 자연적 증감</b> .....	<b>9</b>
1.2.1 출생과 사망.....	10
<b>1.3 인구 이동</b> .....	<b>11</b>
1.3.1 시내 이동.....	12
1.3.2 시외 이동 : 서울 전입.....	12
1.3.3 시외 이동 : 서울 전출.....	13
1.3.4 전국과 대비한 서울, 수도권의 인구성장.....	14
<b>1.4 가구 변화</b> .....	<b>15</b>
1.4.1 가 구.....	15
1.4.2 혼인과 이혼.....	17
<b>1.5 경제활동 인구 및 고용</b> .....	<b>18</b>
1.5.1 경제활동인구.....	20
1.5.2 실업률과 고용률.....	20
<b>1.6 면적과 인구밀도</b> .....	<b>21</b>
1.6.1 행정구역 면적.....	21
1.6.2 인구밀도.....	22
1.6.3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	23

# !! 인구개괄

표 1.1-1 인구개괄

단위: 명, 戶, 명/戶, %

연도	총인구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자인구	여자인구
1915	241,085	NA	NA	...	...	124,432	116,653
1916	253,068	11,983	4.97	...	...	131,030	122,038
1917	253,154	86	0.03	...	...	131,033	122,121
1918	250,942	-2,212	-0.87	...	...	129,856	121,086
1919	248,684	-2,258	-0.90	...	...	128,510	120,174
1920	250,208	1,524	0.61	...	...	129,273	120,935
1921	261,698	11,490	4.59	...	...	136,069	125,629
1922	271,414	9,716	3.71	...	...	140,514	130,900
1923	288,260	16,846	6.21	...	...	149,924	138,336
1924	297,465	9,205	3.19	...	...	154,106	143,359
+1925	336,349	38,884	13.07	...	...	176,359	159,990
1926	306,363	-29,986	-8.92	...	...	157,847	148,516
1927	315,006	8,643	2.82	...	...	162,953	152,053
1928	321,848	6,842	2.17	...	...	167,046	154,802
1929	340,290	18,442	5.73	...	...	176,449	163,841
+1930	355,426	15,136	4.45	...	...	183,305	172,121
+1931	365,432	10,006	2.82	...	...	186,447	178,985
1932	374,909	9,477	2.59	...	...	187,009	187,900
1933	382,491	7,582	2.02	...	...	191,249	191,242
1934	394,511	12,020	3.14	...	...	197,108	197,403
1935	404,202	9,691	2.46	...	...	200,901	203,301
+1936	727,241	323,039	79.92	...	...	388,194	339,047
+1937	706,396	-20,845	-2.87	...	...	349,178	357,218
1938	737,214	30,818	4.36	...	...	363,893	373,321
1939	774,286	37,072	5.03	...	...	381,400	392,886
1940	935,464	161,178	20.82	...	...	476,868	458,596
+1941	974,933	39,469	4.22	...	...	480,960	493,973
+1942	1,114,004	139,071	14.26	...	...	561,066	552,938
1943	1,078,178	-35,826	-3.22	...	...	536,633	541,545
1944	947,630	-130,548	-12.11	...	...	450,287	497,343
+1945	901,371	-46,259	-4.88	...	...	424,687	476,684
1946	1,266,057	364,686	40.46	...	...	645,515	620,542
1947	1,646,902	380,845	30.08	...	...	841,904	804,998
1948	1,707,522	60,620	3.68	...	...	869,422	838,100
*1949	1,418,025	-289,497	-16.95	...	...	715,078	702,947

연도	총인구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자인구	여자인구
1950	1,693,224	275,199	19.41	...	...	850,758	842,466
1951	648,432	-1,044,792	-61.70	...	...	287,205	361,227
1952	716,865	68,433	10.55	...	...	330,547	386,318
1953	1,010,416	293,551	40.95	...	...	479,798	530,618
1954	1,242,880	232,464	23.01	...	...	603,063	639,817
*1955	1,574,868	331,988	26.71	...	...	786,159	788,709
1956	1,503,865	-71,003	-4.51	...	...	735,224	768,641
1957	1,666,005	162,140	10.78	...	...	818,019	847,986
1958	1,756,406	90,401	5.43	...	...	866,038	890,368
1959	2,093,969	337,563	19.22	...	...	1,035,003	1,058,966
*1960	2,445,402	351,433	16.78	...	...	1,222,695	1,222,707
1961	2,584,952	139,550	5.71	...	...	1,274,256	1,310,696
1962	2,983,324	398,372	15.41	...	...	1,477,421	1,505,903
1963	3,254,630	271,306	9.09	...	...	1,608,513	1,646,117
1964	3,424,385	169,755	5.22	...	...	1,692,106	1,732,279
1965	3,470,880	46,495	1.36	...	...	1,708,423	1,762,457
*1966	3,793,280	322,400	9.29	...	...	1,894,739	1,898,541
1967	3,969,218	175,938	4.64	...	...	1,951,732	2,017,486
1968	4,334,973	365,755	9.21	...	...	2,140,083	2,194,890
1969	4,776,928	441,955	10.20	...	...	...	...
*1970	5,433,198	656,270	13.74	5,422,735	10,463	2,666,129	2,767,069
#1970	5,525,262	748,334	15.67			2,762,190	2,763,072
1971	5,850,925	417,727	7.69	...	...	2,914,059	2,936,866
1972	6,076,143	225,218	3.85	...	...	3,020,029	3,056,114
1973	6,289,556	213,413	3.51	...	...	3,095,992	3,193,564
1974	6,541,500	251,944	4.01	...	...	3,220,575	3,320,925
*1975	6,889,502	348,002	5.32	6,879,464	10,038	3,432,182	3,457,320
1976	7,254,958	365,456	5.30	...	...	3,580,754	3,674,204
1977	7,525,629	270,671	3.73	...	...	3,725,972	3,799,657
1978	7,823,195	297,566	3.95	...	...	3,894,433	3,928,762
1979	8,114,021	290,826	3.72	...	...	4,038,173	4,075,848
*1980	8,364,379	250,358	3.09	8,350,616	13,763	4,168,875	4,195,504
1981	8,676,037	311,658	3.73	8,666,695	9,342	4,288,804	4,387,233
1982	8,916,481	240,444	2.77	8,907,568	8,913	4,412,300	4,504,181
1983	9,204,344	287,863	3.23	9,195,207	9,137	4,607,351	4,596,993
1984	9,501,413	297,069	3.23	9,491,503	9,910	4,759,713	4,741,700
*1985	9,639,110	137,697	1.45	9,625,755	13,355	4,795,086	4,844,024
1986	9,798,542	159,432	1.65	9,786,536	12,006	4,905,220	4,893,322
1987	9,991,089	192,547	1.97	9,979,577	11,512	5,006,777	4,984,312
1988	10,286,503	295,414	2.96	10,276,308	10,195	5,161,685	5,124,818
1989	10,576,794	290,291	2.82	10,566,447	10,347	5,310,907	5,265,887

연도	총인구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자인구	여자인구
*1990	10,612,577	35,783	0.34	10,603,250	9,327	5,326,341	5,286,236
1991	10,904,527	291,950	2.75	10,873,055	31,472	5,485,353	5,419,174
1992	10,969,862	65,335	0.60	10,935,230	34,632	5,519,096	5,450,766
1993	10,925,464	-44,398	-0.40	10,889,499	35,965	5,496,638	5,428,826
1994	10,798,700	-126,764	-1.16	10,759,454	39,246	5,429,554	5,369,146
1995	10,595,943	-202,757	-1.88	10,550,871	45,072	5,326,022	5,269,921
1996	10,469,852	-126,091	-1.19	10,418,076	51,776	5,258,247	5,211,605
1997	10,389,057	-80,795	-0.77	10,336,134	52,923	5,214,266	5,174,791
1998	10,321,496	-67,561	-0.65	10,270,506	50,990	5,173,556	5,147,940
1999	10,321,449	-47	0.00	10,264,260	57,189	5,170,662	5,150,787
2000	10,373,234	51,785	0.50	10,311,314	61,920	5,198,186	5,175,048
2001	10,331,244	-41,990	-0.40	10,263,336	67,908	5,175,786	5,155,458
2002	10,280,523	-50,721	-0.49	10,207,295	73,228	5,144,833	5,135,690
2003	10,276,968	-3,555	-0.03	10,174,086	102,882	5,133,694	5,143,274
2004	10,287,847	10,879	0.11	10,173,162	114,685	5,128,752	5,159,095
2005	10,297,004	9,157	0.09	10,167,344	129,660	5,123,738	5,173,266
2006	10,356,202	59,198	0.57	10,181,166	175,036	5,145,481	5,210,721
2007	10,421,782	65,580	0.63	10,192,710	229,072	5,174,655	5,247,127
2008	10,456,034	34,252	0.33	10,200,827	255,207	5,184,732	5,271,302
2009	10,464,051	8,017	0.08	10,208,302	255,749	5,181,359	5,282,692
2010	10,575,447	111,396	1.06	10,312,545	262,902	5,236,742	5,338,705

주

1. 1936년 이전 인구수는 京城府史에 의한 수입
2. + 표시는 해방전 국세조사인구
3. \* 표시는 1949년 총인구조사, 1955년 간이총인구조사, 1960년 국세조사인구, 1966,1970,1975,1980,1985,199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4. 상주인구조사: 1962~1965, 1967~1968, 1971~1974, 1976~1979, 1981~1984, 1986~1989년
5. 주민등록인구조사: 1969년, 1991년 이후
6. 동일 조사인 경우에도 집계조사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음 (조사일 기준 : 서울통계연보 주석 참고)
7. 65세 이상 고령자는 1992년까지 외국인 제외, 1993년부터 외국인 포함
8. 과거 발간된 서울통계연보 값이 일부 수정되었을 경우, 가장 최근에 발간한 통계연보 기준으로 업데이트시킴
9. 1970년의 경우, 서울시 통계연보에 제시된 총조사인구값과 통계청의 총조사인구 시계열 값(#1970년으로 표시)이 상이함

자료출처

서울시, 서울통계-서울통계-통계자료-주제별-인구-인구추이-주민등록인구  
 (Web : [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8](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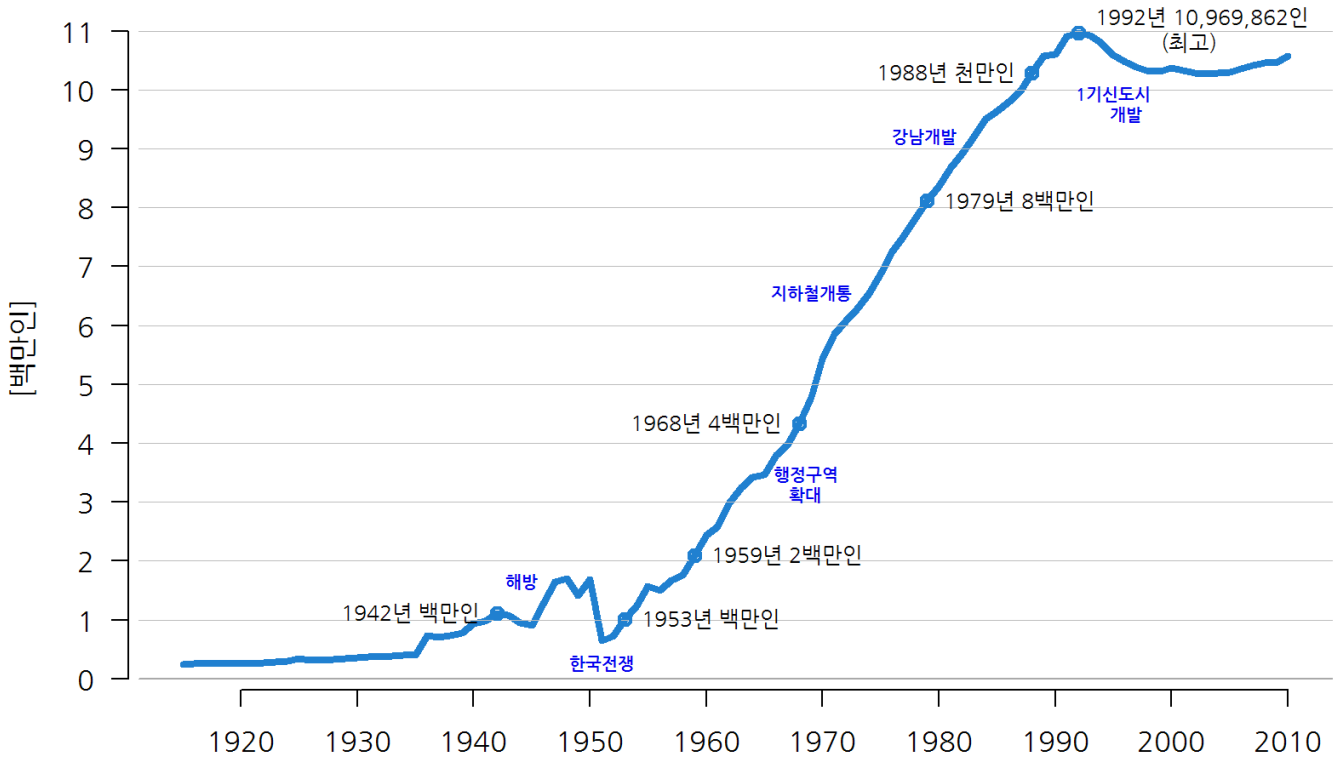


그림 1.1-1 인구 증가 추이

### !!! 인구 증감

20 세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 인구는 약 20 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통계연보 상에 인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915 년으로 이때 서울의 인구는 약 24 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20 세기 초반 일제 식민통치 아래 서울의 인구는 1935 년까지 매년 3-6% 내.외의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1936 년에는 전년 대비 79.9% 증가하여 약 73 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행정구역 확장 때문이었다. 1930 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 군수산업정책에 따른 공업화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42 년 처음으로 100 만 명을 돌파하였다.

1945 년 해방 전까지 서울인구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1945 년 광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방된 이듬해인 1946 년에는 서울인구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여 36 만여 명이 늘어났다. 광복 후 4 년간의 서울시 인구증가 중 50% 이상이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 해외 이주민의 귀국 및 북한 주민의 남하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50%는 자연증가와 남한 내 농촌인구의 서울 유입에 의한 것이었다.

1950 년 약 170 만 명까지 증가하였던 서울인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다. 1951 년에는 100 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64.8 만여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맺어진 1953 년에 서울인구는 100 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59 년에 200 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제대한 군인과 일자리를 찾는 농민들이 서울로 들어온 데 따른 결과이다.

이후 1960 년대와 1970 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은 1965 년을 제외하고 매년 14-60 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는 1960 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많은 농촌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었고,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자연증가가 더해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서울인구는 1953 년 100 만 명에서 6 년 후인 1959 년에 200 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시 4 년 후인 1963 년에 300 만 명, 5 년 후인 1968 년에 400 만 명, 그리고 1970 년에 500 만 명을 넘어섰다. 1970 년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서울인구는 1972 년에 600 만 명을 돌파하였고, 4 년 후인 1976 년에 700 만 명, 3 년 후인 1979 년에는 800 만 명을 넘어섰

다. 이러한 서울의 인구 증가는 행정구역 확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한 해 또는 두 해 만에 분당 또는 일산 등 신도시의 인구만큼 늘어나는, 세계 도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로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80 년대에 들어서도 서울은 강남지역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 정도로 완화되었으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약 4~5 년마다 인구가 100 만 명씩 늘어나는 급속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1979 년 800 만 명을 넘어섰던 서울인구는 4 년 후인 1983 년에 900 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5 년 후인 1988 년에 서울인구는 드디어 1,000 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인구 100 만 명의 1953 년 이후 15 년 만에 서울인구가 10 배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은 1980 년대 후반 이후 인구 1,000 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거대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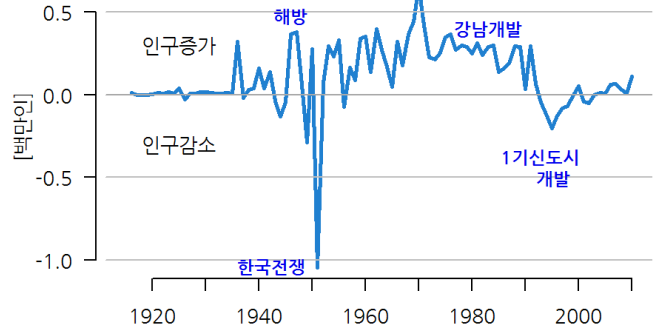


그림 1.1-2 인구증감

이러한 인구증가 추이는 1990 년대에 들어오면서 둔화되었으며, 1992 년 1,097 만 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외화 현상 때문이며, 1995 년에는 약 20 만 명이 감소하였다.

2000 년대에 들어서 서울인구는 2003 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국제결혼 이민자 수의 증가, 외국인노동력, 방문취업자격자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은 2000 년을 기준으로 볼 때 10 년 동안 4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0 년 말 현재 서울인구는 1,058 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20 세기 동안 급속하게 증가했던 서울인구는 거의 100 년 만에 안정단계에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1.2 남녀성비

표 1.1-1 에 연도별 남성 및 여성의 인구 수가 수록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인구 수의 차이가 현격했던 것은 아니지만, 20 세기 초반이 1930 년대까지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았고, 1930 년대 초반부터 해방이 된 1945 년까지는 여성인구가 많다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1950 년까지는 다시 남성인구가 더 많았다. 그리고 1950 년대부터 1980 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여성인구가 많았으며, 1980 년대 중반 이후 다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은 남초 현상을 보였다.

1930 년대 이후 해방되기까지 여초현상(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현상)을 보인 것은 일본 식민통치가 강화되고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남성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 이후부터 1950 년까지 남성인구가 다시 늘어난 것은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해외로 이주하였던 남자들이 대거 귀국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50 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해 많은 남성이 참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전쟁에서 전사하여 여초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50 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60~1970 년대 그리고 1980 년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근대화, 산업화라는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었다. 1960~1970 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던 산업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인데, 많은 농촌 여성이 제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으로 진입하였다. 1983 년부터 2002 년까지는 여성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다시 남초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3 년 이후부터는 출생 성비는 안정된 반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긴 평균 수명을 가진, 고령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초 현상을 나타냈다.

1960년 이전까지 서울인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사회변동 속에서 남초 또는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인구 구성의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였다. 예컨대, 1930년 이전 남자가 많던 시기의 성비는 106~110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 1960년부터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최근 성비는 1980년 99.4, 1990년 100.8, 2000년 100.4, 2010년 98.1로 남녀 인구가 큰 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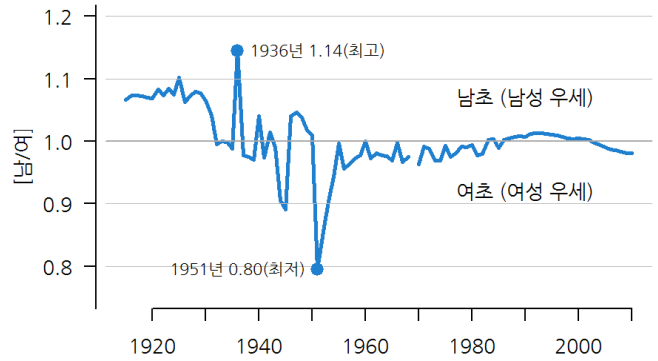


그림 1.1-3 남녀 성비

### 1.1.3 연령별 인구구성

표 1.1-2 연령별 인구구성 및 부양비

단위: 명, %

조사	연도	기준	전체인구	유년인구	청장년인구		노년인구		전체 부양비	노년 부양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택총조사	1955	내국인	1,568,746	605,988	38.6	905,712	57.7	57,046	3.6	73.2	6.3
	1960	내국인+외국인	2,445,402	901,468	36.9	1,455,138	59.5	87,488	3.6	68.0	6.0
	1966	내국인+외국인	3,793,280	1,437,174	37.9	2,233,415	58.9	121,182	3.2	69.8	5.4
	1970	내국인+외국인	5,525,262	1,986,732	36.0	3,438,354	62.2	100,176	1.8	60.7	2.9
	1975	내국인	6,879,464	2,311,634	33.6	4,422,848	64.3	144,982	2.1	55.5	3.3
	1980	내국인	8,350,616	2,602,264	31.2	5,540,397	66.3	207,955	2.5	50.7	3.8
	1985	내국인	9,625,755	2,719,335	28.3	6,626,464	68.8	279,956	2.9	45.3	4.2
	1990	내국인	10,603,250	2,625,368	24.8	7,615,226	71.8	362,656	3.4	39.2	4.8
주민등록인구 조사	1995	내국인	10,550,871	2,242,408	21.3	7,849,545	74.4	458,918	4.3	34.4	5.8
	2000	내국인	10,311,314	1,915,717	18.6	7,837,031	76.0	558,566	5.4	31.6	7.1
		(내국인+외국인)	10,373,234	1,928,361	18.6	7,884,427	76.0	560,446	5.4	31.6	7.1
	2005	내국인	10,167,344	1,705,769	16.8	7,730,226	76.0	731,349	7.2	31.5	9.5
		(내국인+외국인)	10,297,004	1,715,719	16.7	7,845,383	76.2	735,902	7.1	31.2	9.4
	2010	내국인	10,312,545	1,434,580	13.9	7,875,195	76.4	1,002,770	9.7	30.9	12.7
	(내국인+외국인)	10,575,447	1,444,419	13.7	8,123,456	76.8	1,007,572	9.5	30.2	12.4	

주

- 1995년 이전 연령별 인구는 통계청 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
- 조사의 종류, 외국인 포함 유무 등 연도별로 기준이 다름
- 1995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주민등록조사는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수행)
- 1960년대 중반 인구주택총조사는 1966년에 수행
- 1970년 인구구성은 표 1.1-1 인구개괄의 통계청 총조사인구 시계열 값(#1970년)을 사용

용어설명

- 유년인구는 만 14세 이하, 청장년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 노년인구는 만 65세 이상임
- 1960년, 1965년에는 노년인구는 만 60세 이상임(당시 관념상의 노년인구)/ 1970년 이후부터는 노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봄
- 부양비 = (유년인구+노년인구)/청장년인구\*100 ||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청장년인구

자료출처

- 1955~1990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분-총조사인구 총괄(시도/성/5세연령별) (Web :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1995~2010년 내국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주민등록인구 통계-동읍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 2000~2010년 내국인+외국인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인구-연령별(5세계급)별 및 성별 인구)



정부와 서울시의 공식적인 통계는 1955년부터 연령별로 구분된 인구 구성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령별 인구 구성은 유년인구(만 14세 이하), 청장년 인구(만 15세부터 64세), 노년인구(만 65세 이상)로 나누어진다. 단, 1965년 이전의 노년인구는 당시 관념상의 노인 기준인 60세 이상 인구로 구분하였고, 주로 내국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1955년부터 현재시점까지 연령별 인구 구성 특징을 살펴보면, 유년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청장년인구의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절대규모가 감소하다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년인구는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률 감소로 전 기간에 절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내국인 기준으로 볼 때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구성비는 1955년 38.6%에서 2010년 13.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는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장년인구의 구성비는 1955년 57.7%에서 2010년 76.4%로 1.3배 증가하였다. 1960-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주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젊은 노동인력의 서울 전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증가세를 유지 하던 청장년인구의 절대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청장년층의 구성비가 계속 증가한 것은 이 연령대의 절대인구 증가보다 유년인구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균 20% 내외의 청장년층 절대인구의 증가를 보인 1980-1985년에 비해, 1990-1995년에는 증가율이 3%에 불과하였고, 1995-2000년 기간에는 절대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5-2010년 기간의 청장년층 인구는 증가하였다.

노년인구 구성비는 1960-1970년대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노인인구는 1955년 전체 인구의 3.6%에서 1970년 전체인구의 1.8%로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노년인구의 기준을 달리하여 나타난 차이로 1965년까지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반면, 1970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노년인구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60-1970년대 청장년층의 서울 유입으로 인해 노년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노년인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 5.4%에 불과 하던 노년인구가 2005년 7.2%로 증가함으로써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 현재 노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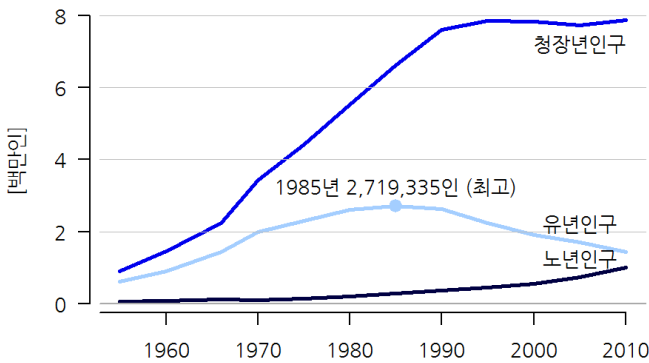


그림 1.1-4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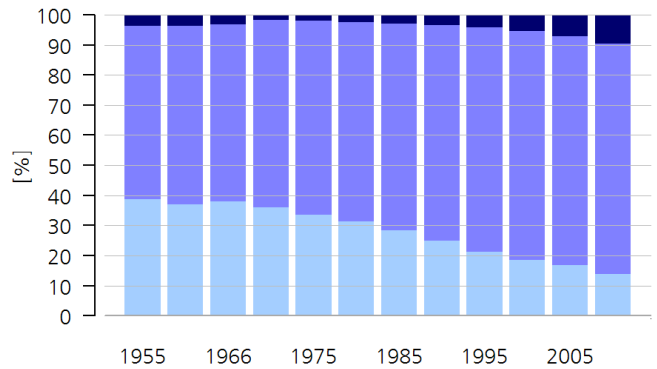


그림 1.1-5 연령별 인구 비율

### 1.1.4 부양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난 60년간 부양비(청장년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인구 및 노년인구의 비율:  $[\text{유년인구} + \text{노년인구}] / \text{청장년인구} \times 100$ )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청장년인구의 절대 규모는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절대규모가 크지 않은 노년인구의 증가로 부양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1955년 청장년 100명이 노인 73.2명을 부양해야 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노인 30.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부양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노년인구를 65세 이상이라고 명명한 시점인 1970년 자료와 비교 시, 청장년 100명이 2.9명의 노인만 부양하면 되는 1970년에 비해, 2010년에는 12.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노년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인 청장년의 부양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서울이지만, 2010년 노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9.7%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된다.

## 1.2 인구의 자연적 증감

표 1.2-1 출생 및 사망, 자연인구 증가율

연도	출생	조출생률 인구천명당	사망	조사망률 인구천명당	자연인구 증가율 인구천명당
	출생수 명		사망수 명		
*1970	152,000	23.9	25,000	3.9	19.90
*1975	167,000	21.5	31,000	4.1	17.50
*1980	188,000	20.6	34,000	3.7	16.80
*1985	163,000	16.1	37,000	3.7	12.50
1990	168,838	16.1	38,266	3.7	12.50
1991	180,301	17.2	38,552	3.7	13.60
1992	182,691	17.5	37,856	3.6	13.90
1993	175,827	16.1	38,213	3.5	12.60
1994	175,707	16.2	39,267	3.6	12.60
1995	166,236	15.6	38,577	3.6	12.00
1996	152,140	14.5	38,612	3.7	10.80
1997	141,204	13.6	37,661	3.6	10.00
1998	133,174	12.9	37,692	3.7	9.30
1999	126,742	12.3	37,596	3.7	8.70
2000	131,935	12.8	38,815	3.8	9.10
2001	113,632	11.0	37,979	3.7	7.40
2002	100,928	9.9	38,491	3.8	6.10
2003	100,137	9.8	37,693	3.7	6.10
2004	98,790	9.7	37,872	3.7	6.00
2005	89,489	8.8	38,365	3.8	5.00
2006	92,885	9.1	38,117	3.7	5.40
2007	100,107	9.8	38,645	3.8	6.00
2008	94,736	9.3	38,298	3.8	5.50
2009	89,595	8.8	38,788	3.8	5.00
2010	93,268	9.2	40,129	3.9	5.20

주

- 1970~1985년 : 연도 앞의 \* 표시는 5년간 연평균 수치를 의미함
- "출생통계(1981~2008), 사망통계(1983~2007)"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원 및 집계방식을 단일화하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 집계방식 변경, 누적분 추가 등으로 인해 2003년 판과 값이 상이할 수 있음
- 조출생률: 당해연도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1,000 분비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사망률: 특정연도의 연간 총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1,000 분비  
 $조사망률 = (연간 총사망자수 / 연앙인구) * 1000$
- 자연인구증가율: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당해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1,000 분비
- 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중복 및 누락 등을 보완하고, 장래 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매년 7월 1일 현재시점의 인구
- 인구동태에서 사용된 연앙인구  
 1970~1992년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96.12)의 연도별 7월 1일 연앙추계인구  
 1993년 이후 : 연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작성된 연앙(7월 1일 기준)주민등록인구 이용
- 집계 시점에서 지연신고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통계와 발간되는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 값이 일부 다를 수 있음

자료출처

- 1970~1985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추계인구·가구-장래인구 추계-시도(2010)-출생,사망,순이동(시도)
- 1990년 이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인구동향조사-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Web :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1.2.1 출생과 사망

표 1.2-1 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출생과 사망 상황을 보여준다. “1.3 인구이동”의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서울시의 자연증감으로 인한 인구규모 변화를 나타낸다. 통계청을 통해 1990 년까지는 5 년 단위로 계산된 연평균 자료를, 그 이후는 1 년 단위의 자료를 구했다.

우선 서울시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1970 년부터 최근까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70 년 23.9 명에서 2010 년 9.2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1970 년 이후 출생률의 감소는 1960 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효과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1970 년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여성의 가임 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2000 년 이후에는 출생률 역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나,

2006-2007 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0 년에도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한편 인구 천명당 조사망률은 1970 년 3.9 명에서 1975 년 4.1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3.5-3.9 명 수준으로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0 년대부터 약 3.8 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던 사망자수는 2010 년에 4 만명대로 증가하였다. 조사망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1990 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천명당 10 명 이하),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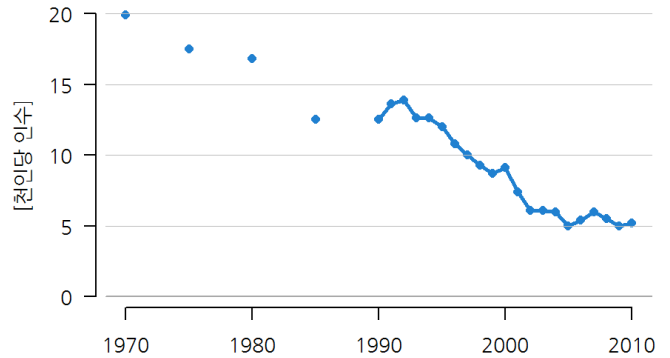


그림 1.2-1 자연적 인구증감

### 1.3 인구이동

표 1.3-1 인구이동 : 전입과 전출

단위: 명

연도	서울내 이동		전출		전입			순전입	
	서울-서울	서울-인천·경기	서울-비수도권	합계	인천·경기-서울	비수도권-서울	합계	*합계 (국외 및 기타 포함)	*전입-전출
1970	1,232,619	130,149	86,217	216,366	95,388	414,227	509,615	510,194	293,828
1971	1,158,556	150,313	110,147	260,460	95,423	417,726	513,149	513,149	252,689
1972	985,945	93,333	131,281	224,614	90,470	272,918	363,388	363,388	138,774
1973	1,345,508	143,234	158,526	301,760	107,177	378,086	485,263	486,350	184,590
1974	1,511,726	149,045	158,889	307,934	107,518	424,478	531,996	538,666	230,732
1975	2,401,970	253,705	281,418	535,123	207,641	784,985	992,626	994,692	459,569
1976	2,041,724	202,276	251,620	453,896	144,524	567,935	712,459	714,786	260,890
1977	2,212,213	207,722	258,072	465,794	154,021	526,150	680,171	681,190	215,396
1978	2,518,286	237,684	272,941	510,625	164,771	605,064	769,835	789,153	278,528
1979	1,883,742	278,411	279,089	557,500	168,188	533,926	702,114	705,925	148,425
1980	1,985,766	297,539	319,607	617,146	231,651	549,139	780,790	782,050	164,904
1981	2,090,599	306,952	313,927	620,879	229,369	539,533	768,902	769,261	148,382
1982	2,200,559	366,052	299,383	665,435	241,516	555,498	797,014	797,295	131,860
1983	2,510,626	458,833	322,894	781,727	287,329	623,626	910,955	923,558	141,831
1984	2,208,384	418,953	292,475	711,428	284,569	558,365	842,934	844,174	132,746
1985	2,007,557	458,155	288,311	746,466	278,047	498,395	776,442	776,830	30,364
1986	1,934,992	471,126	282,718	753,844	281,149	466,637	747,786	748,021	-5,823
1987	2,015,454	463,948	289,597	753,545	354,224	483,720	837,944	837,944	84,399
1988	2,431,698	483,242	284,891	768,133	468,144	488,545	956,689	956,689	188,556
1989	2,186,860	486,271	266,342	752,613	396,074	466,183	862,257	862,257	109,644
1990	1,972,421	577,422	267,641	845,063	326,161	427,910	754,071	754,071	-90,992
1991	1,764,051	465,329	244,737	710,066	301,258	371,929	673,187	673,187	-36,879
1992	1,764,955	500,441	235,302	735,743	298,937	331,922	630,859	630,859	-104,884
1993	1,648,211	570,296	223,458	793,754	300,365	310,757	611,122	611,122	-182,632
1994	1,666,106	606,689	203,788	810,477	303,631	270,349	573,980	573,980	-236,497
1995	1,603,840	662,106	221,284	883,390	304,494	256,998	561,492	561,492	-321,898
1996	1,571,154	579,197	220,441	799,638	333,744	254,657	588,401	588,401	-211,237
1997	1,485,450	556,268	211,485	767,753	339,191	250,243	589,434	589,434	-178,319
1998	1,256,643	460,996	219,305	680,301	315,089	231,199	546,288	546,288	-134,013
1999	1,668,474	525,984	224,653	750,637	389,245	280,270	669,515	669,515	-81,122
2000	1,582,429	488,402	195,515	683,917	358,586	278,392	636,978	636,978	-46,939
2001	1,658,076	552,440	199,217	751,657	365,951	271,757	637,708	637,708	-113,949
2002	1,672,647	572,265	179,560	751,825	366,561	278,843	645,404	645,404	-106,421
2003	1,609,693	502,643	199,355	701,998	368,210	264,820	633,030	633,030	-68,968
2004	1,345,348	441,773	186,318	628,091	328,876	252,011	580,887	580,887	-47,204
2005	1,397,713	460,933	183,110	644,043	351,864	241,172	593,036	593,036	-51,007
2006	1,521,108	497,099	192,251	689,350	400,152	252,647	652,799	652,799	-36,551
2007	1,448,604	482,938	199,386	682,324	378,233	251,208	629,441	629,441	-52,883
2008	1,426,213	462,901	194,238	657,139	363,994	235,151	599,145	599,145	-57,994
2009	1,286,855	443,674	194,923	638,597	356,810	229,523	586,333	586,333	-52,264
2010	1,199,708	456,817	191,513	648,330	321,633	211,674	533,307	533,307	-115,023

주

1. 서울-인천·경기/ 인천·경기-서울 : 서울-인천·경기 지역간 전출/전입을 의미(1981년 이후부터는 인천으로의 전출/전입 추가)
2. 서울-비수도권/ 비수도권-서울: 서울-수도권이 아닌 기타 전국 지역간 전출/전입을 의미
3. 1986년 이전에는 전국 전출자료에 국외 및 기타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총 전입과 개별시도-서울간 전입의 합이 다를 수 있음
4. 순전입 : 전입 합계(국외 및 기타코드 포함)-전출 합계를 의미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인구이동-국내인구이동 통계-시군구별 이동자수  
(Web :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1.3.1 시내 이동

서울시민의 시내이동 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주거이동 성향을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 서울 총인구의 100 명을 기준으로 볼 때 1970 년 한 해 동안 22.7 명이 이사를 하였으며, 1980 년에는 23.7 명이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 년에는 100 명당 18.6 명이, 2000 년에는 15.3 명이 이사를 하였다.

시내이동 빈도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5 년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약 1/3 에 해당하는 2.4 백만 명이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0 명당 34.9 명이 한 해 동안 이사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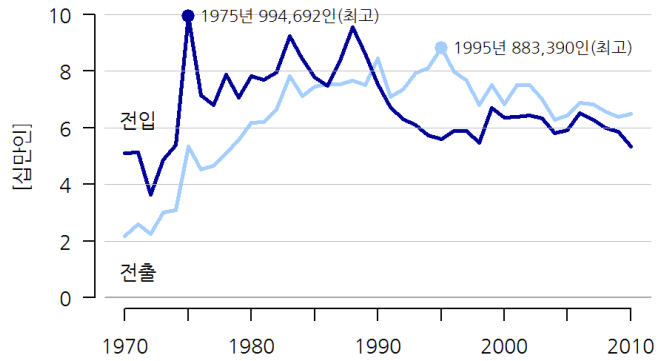


그림 1.3-1 인구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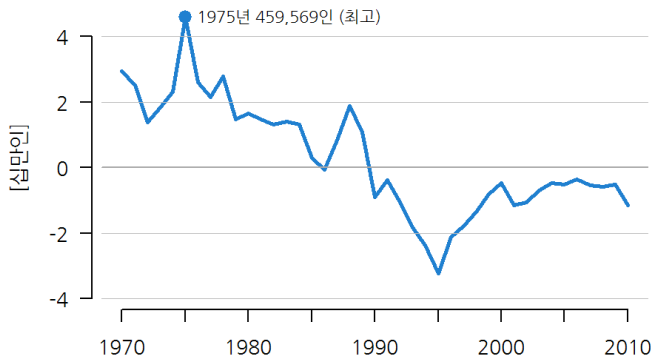


그림 1.3-2 순전입 = 전입-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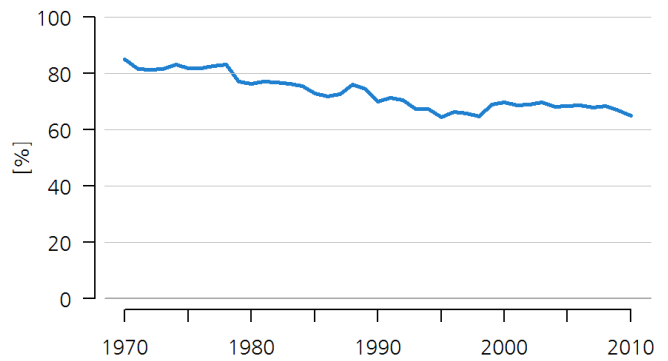


그림 1.3-3 서울시 총 전출 중 서울내 이동비율

### 1.3.2 시외 이동 : 서울 전입

1970 년부터 1989 년까지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서울시로 전입한 인구가 전출한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연도는 1975 년으로 이 시기의 순 전입인구(전입-전출)는 46 만 명에 달했다. 전입인구의 증가는 1960-1970 년대 서울의 인구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인으로 이 당시 서울의 인구 증가는 자연증가보다 인구이동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990 년 이후부터는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는 1995 년으로 순 전출인구(전출-전입)는 32 만 명이였다. 전출인구 규모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990 년대 이후 서울인구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은 경제 및 교육의 중심지로 전국 각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기별로 유입되는 지역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울 이외 지역을 인천/경기 지역과 그 이외 기타(이하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할 때, 1980 년대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되는 인구가 더 많았다. 이 시기의 전입인구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추이를 반영했다. 1990 년대에 들어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인천/경기로부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 서울의 인구집중은 1980 년대까지는 전국적인 유입 양상을 보이는 반면, 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주변 대도시권 내로부터 유입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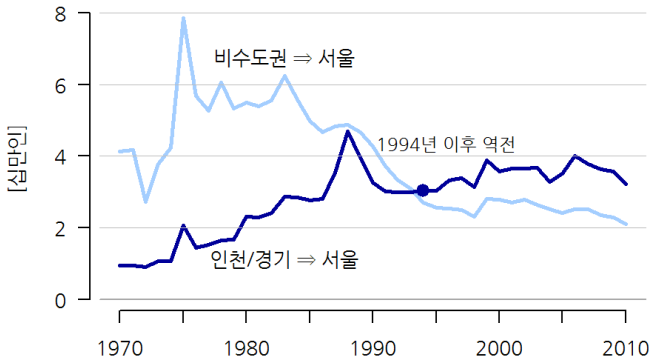


그림 1.3-4 서울시로의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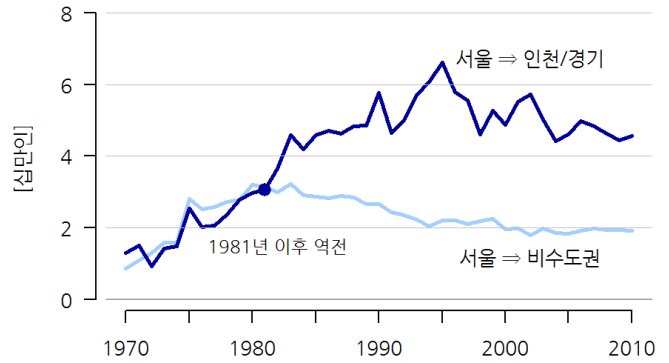


그림 1.3-5 서울시에서의 전출

### 1.3.3 시외 이동 : 서울 전출

한편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인천/경기 지역으로의 전출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1980년대 초까지 인천/경기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하는 규모가 유사하였으나, 1982년을 기점으로 인천/경기로 전출하는 인구가 타 시·도로 이동하는 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로도 인천/경기 지역으로 전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적되었다. 그림 1.3-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서울의 인구전출이 전입과 마찬가지로 주변 대도시권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인구 집중과 분산은 1980년대까지 국가의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절대 인구가 안정화되면서 서울의 광역화 및 교외화라는 차원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과 주변의 인천/경기 지역은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성장하여 그 안에서 활발한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 신도시 건설, 외곽 주택지 개발, 고용의 외연적 확산 등이 서울인구의 전출을 유발하고 있으며, 서울이 제공하는 취업, 교육, 문화적 기회 등이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인천/경기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에 비해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그 차이가 약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출인구의 증가로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절대적인 인구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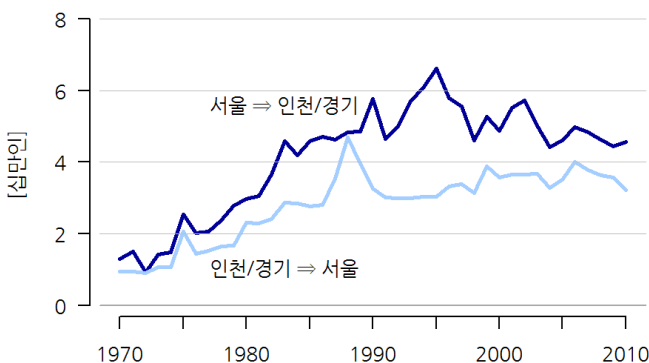


그림 1.3-6 서울시와 인천/경기 사이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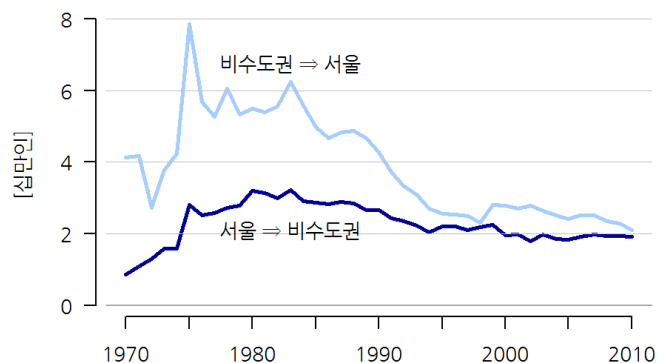


그림 1.3-7 서울시와 비수도권 사이의 이동

### 1.3.4 전국과 대비한 서울, 수도권 인구성장

표 1.3-2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규모 및 증감 비율

단위: 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절대인구 규모	서울	5,525,262	8,364,379	10,612,577	9,895,217	9,794,304
	인천·경기	3,353,272	4,933,862	7,973,551	11,459,273	14,041,968
	수도권	8,878,534	13,298,241	18,586,128	21,354,490	23,836,272
	<b>전국</b>	<b>31,435,252</b>	<b>37,436,315</b>	<b>43,410,899</b>	<b>46,136,101</b>	<b>48,580,293</b>
절대인구 비율	서울/전국	17.6	22.3	24.4	21.4	20.2
	인천·경기/전국	10.7	13.2	18.4	24.8	28.9
	수도권/전국	28.2	35.5	42.8	46.3	49.1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0
인구증감 규모	서울	3,080	2,839	2,248	-717	-101
	인천·경기	605	1,581	3,040	3,486	2,583
	수도권	3,684	4,420	5,288	2,768	2,482
	<b>전국</b>	<b>6,446</b>	<b>6,001</b>	<b>5,975</b>	<b>2,725</b>	<b>2,444</b>
인구증감 비율	서울/전국	47.8	47.3	37.6	-26.3	-4.1
	인천·경기/전국	9.4	26.3	50.9	127.9	105.7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01.6	101.5

주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 본자료는 통계청의 총조사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총인구(내국인+외국인)에 해당하는 값임
4. 앞의 서울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와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출처

1. 1960~1970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 총괄(시도/성/5세연령별) (1980년 이후에는 내국인만 집계되어 제외)
2. 1980~2010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시계열 연계-시군구-2010년 행정구역 기준 인구 추이 (Web :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은 인구 이동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절대 인구규모의 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서울보다 더 큰 증가 폭을 보여준다.

전국 대비 서울의 인구는 1970년 17.6%에서 1990년 24.4%로 성장한 이후, 2010년 현재 20.2%로 감소하였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1970년 10.7%에서 2010년 28.9%로 급증하였다.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1970년 28.2%에서 2010년 49.1%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준다.

1960~1970년 기간에 서울이 전국 인구 증가분의 47.8%를, 인천/경기 지역이 9.4%를 흡수하는 등 전국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의 인구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인구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는 1990~2000년이었다. 이 기간에는 전국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는 2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인천/경기의 인구는 전국인구 증가분보다 약 1.3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증감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인구 이동 및 증가가 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1.4 가구 변화

### 1.4.1 가구

표 1.4-1 가구 변화

단위: 명, 戶, 명/戶

연도	총인구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가구수	가구당 평균 인구	연도	총인구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가구수	가구당 평균 인구
1915	241,085	...	55,367	4.35	1950	1,693,224	...	318,673	5.31
1916	253,068	...	58,082	4.36	1951	648,432	...	134,822	4.81
1917	253,154	...	58,063	4.36	1952	716,865	...	147,502	4.86
1918	250,942	...	57,381	4.37	1953	1,010,416	...	195,829	5.16
1919	248,684	...	57,029	4.36	1954	1,242,880	...	230,716	5.39
1920	250,208	...	54,614	4.58	*1955	1,574,868	...	259,660	6.07
1921	261,698	...	57,029	4.59	1956	1,503,865	...	275,652	5.46
1922	271,414	...	59,689	4.55	1957	1,666,005	...	303,780	5.48
1923	288,260	...	63,863	4.51	1958	1,756,406	...	319,974	5.49
1924	297,465	...	66,151	4.50	1959	2,093,969	...	385,076	5.44
+1925	336,349	...	70,192	4.79	*1960	2,445,402	...	446,874	5.47
1926	306,363	...	68,863	4.45	1961	2,584,952	...	486,697	5.31
1927	315,006	...	70,288	4.48	1962	2,983,324	...	554,136	5.38
1928	321,848	...	71,201	4.52	1963	3,254,630	...	597,132	5.45
1929	340,290	...	74,331	4.58	1964	3,424,385	...	633,026	5.41
+1930	355,426	...	74,909	4.74	1965	3,470,880	...	649,290	5.35
+1931	365,432	...	77,701	4.70	*1966	3,793,280	...	725,130	5.23
1932	374,909	...	78,261	4.79	1967	3,969,218	...	754,261	5.26
1933	382,491	...	79,519	4.81	1968	4,334,973	...	837,362	5.18
1934	394,511	...	80,961	4.87	1969	4,776,928	...	961,491	4.97
1935	404,202	...	82,822	4.88	*1970	5,433,198	5,422,735	1,096,871	4.95
+1936	727,241	...	138,583	5.25	#1970	5,525,262	...	1,029,483	5.37
+1937	706,396	...	144,252	4.90	1971	5,850,925	...	1,151,078	5.08
1938	737,214	...	148,856	4.95	1972	6,076,143	...	1,182,655	5.14
1939	774,286	...	154,223	5.02	1973	6,289,556	...	1,215,538	5.17
1940	935,464	...	174,336	5.37	1974	6,541,500	...	1,273,678	5.14
+1941	974,933	...	173,162	5.63	*1975	6,889,502	6,879,464	1,409,577	4.89
+1942	1,114,004	...	193,610	5.75	1976	7,254,958	...	1,461,009	4.97
1943	1,078,178	...	199,190	5.41	1977	7,525,629	...	1,529,323	4.92
1944	947,630	...	193,915	4.89	1978	7,823,195	...	1,609,121	4.86
+1945	901,371	...	189,590	4.75	1979	8,114,021	...	1,713,193	4.74
1946	1,266,057	...	234,819	5.39	*1980	8,364,379	8,350,616	1,849,324	4.52
1947	1,646,902	...	293,139	5.62	1981	8,676,037	8,666,695	1,915,104	4.53
1948	1,707,522	...	308,287	5.54	1982	8,916,481	8,907,568	2,000,678	4.46
*1949	1,418,025	...	272,314	5.21	1983	9,204,344	9,195,207	2,116,334	4.35

연도	총인구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가구수	가구당 평균 인구	연도	총인구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가구수	가구당 평균 인구
1984	9,501,413	9,491,503	2,245,598	4.23	1998	10,321,496	10,270,506	3,458,511	2.97
*1985	9,639,110	9,625,755	2,337,564	4.12	1999	10,321,449	10,264,260	3,490,616	2.94
1986	9,798,542	9,786,536	2,428,173	4.04	2000	10,373,234	10,311,314	3,540,492	2.91
1987	9,991,089	9,979,577	2,518,128	3.97	2001	10,331,244	10,263,336	3,570,228	2.87
1988	10,286,503	10,276,308	2,658,371	3.87	2002	10,280,523	10,207,295	3,623,929	2.82
1989	10,576,794	10,566,447	2,816,510	3.76	2003	10,276,968	10,174,086	3,714,697	2.74
*1990	10,612,577	10,603,250	2,820,292	3.76	2004	10,287,847	10,173,162	3,780,305	2.69
1991	10,904,527	10,873,055	3,330,317	3.27	2005	10,297,004	10,167,344	3,871,024	2.63
1992	10,969,862	10,935,230	3,383,169	3.24	2006	10,356,202	10,181,166	3,978,938	2.56
1993	10,925,464	10,889,499	3,430,528	3.18	2007	10,421,782	10,192,710	4,046,086	2.52
1994	10,798,700	10,759,454	3,455,665	3.12	2008	10,456,034	10,200,827	4,097,562	2.49
1995	10,595,943	10,550,871	3,448,124	3.06	2009	10,464,051	10,208,302	4,116,660	2.48
1996	10,469,852	10,418,076	3,456,575	3.01	2010	10,575,447	10,312,545	4,224,181	2.44
1997	10,389,057	10,336,134	3,498,506	2.95					

주

1. 가구당 평균인구는 1995년 이전은 총인구(내국인+외국인)을, 1995년 이후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계산됨
2. 표 1.1-1의 주석과 동일

자료출처

1. 총인구, 내국인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주제별-인구-인구추이(주민등록인구)  
(Web : [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8](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8))
2. 가구수, 가구당 평균인구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1

서울의 가구수는 인구규모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15년 약 5.5만이었던 서울의 가구수는 1936년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1946년에 다시 20만 가구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인구성장과 함께 서울의 가구수는 1970년 드디어 100만 가구를 돌파하였고 1982년에 200만 가구, 1991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인구와 가구수의 증가는 약간 다른 패턴을 나타낸다. 인구규모는 1960-197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가구수는 1980년대에 매년 10만 가구 내외의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가구증가와 동시에 핵가족 확산에 따라 가구분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감소하고,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 한부모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울의 가구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70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여 5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4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서울의 가구당 인구수는 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2.44명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당 인구수가 가장 많던 1955년 6.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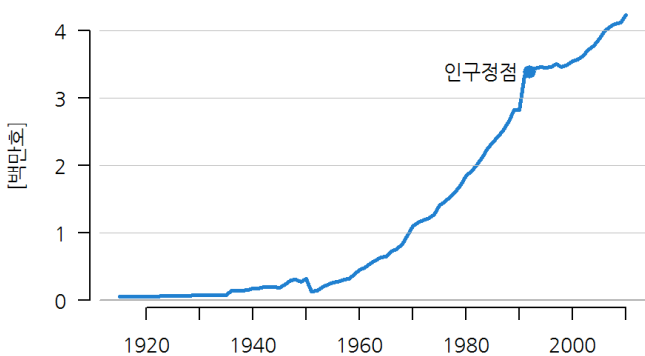


그림 1.4-1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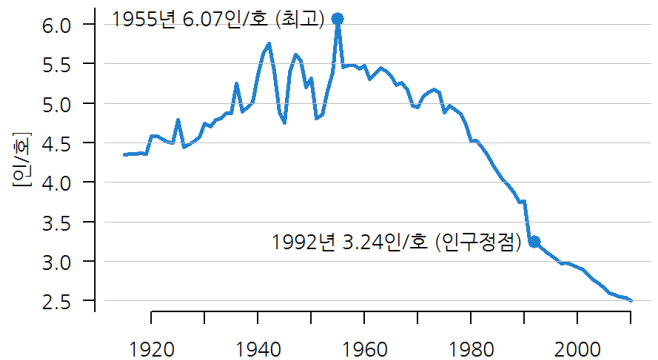


그림 1.4-2 가구당 인구수

## 1.4.2 혼인과 이혼

표 1.4-2 혼인, 이혼

연도	혼인		이혼		연도	혼인		이혼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건	인구천명당	건	인구천명당		건	인구천명당	건	인구천명당
1990	103,843	9.9	12,432	1.2	2001	77,376	7.5	28,962	2.8
1991	108,370	10.4	12,937	1.2	2002	72,696	7.1	29,351	2.9
1992	107,821	10.3	13,461	1.3	2003	72,750	7.1	32,499	3.2
1993	103,511	9.5	14,548	1.3	2004	71,553	7.0	26,994	2.7
1994	100,960	9.3	16,324	1.5	2005	71,286	7.0	25,300	2.5
1995	98,525	9.2	16,296	1.5	2006	73,924	7.3	24,354	2.4
1996	105,100	10.0	18,464	1.8	2007	76,399	7.5	24,615	2.4
1997	93,932	9.1	20,391	2.0	2008	71,753	7.0	23,319	2.3
1998	88,219	8.6	26,090	2.5	2009	68,841	6.7	23,920	2.3
1999	85,215	8.3	25,917	2.5	2010	70,466	6.9	21,768	2.1
2000	78,745	7.7	25,477	2.5					

주

1. "혼인통계(1981~2008)" 및 이혼통계(1981~2008)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원 및 집계방식을 단일화하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1990년 이전 자료 부재)
2. 집계방식 변경, 누적분 추가 등으로 인해 2003년 판과 값이 상이할 수 있음
3. 조혼인/조혼인율: 1년간 발생한 총혼인/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
4. 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중복 및 누락 등을 보완하고, 장래 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매년 7월 1일 현재시점의 인구
5. 조혼인율, 조이혼율 계산시 사용된 연앙인구  
 1990~1992년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96.12)의 연도별 7월 1일 연앙추계인구  
 1993년 이후 : 연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작성된 연앙(7월 1일 기준)주민등록인구 이용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인구동향조사-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Web :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의 혼인 및 이혼 부문은 1990년 이후의 자료만 얻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집계방식 변경 때문에 기존 공표자료의 통계값과 일부 변동이 있다. 서울시 혼인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 현재 혼인율은 6.9로 2000년 7.7에 비해 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적령기 인구가 학업연장이나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결혼을 늦게 하려는 경향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현재 서울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9.8세로 1990년 대비 4.3세, 2000년 대비 2.5세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초혼연령 역시 2010년 32.2세로 1990년 대비 3.9세, 2000년 대비 2.5세 높아졌다. 한편, 혼인율 감소는 초혼연령의 증가뿐 아니라 결혼 가치관 변화로 인한 독신선호자의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통계-서울지표-초혼연령 참조)

반면 이혼율은 1990년에는 인구 천명당 1.2명이 이혼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3.2명이 이혼 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이혼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조이혼율은 2.1명이다.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점 줄어들고, 사회활동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구성을 전통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던 과거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편부모, 재혼가정 등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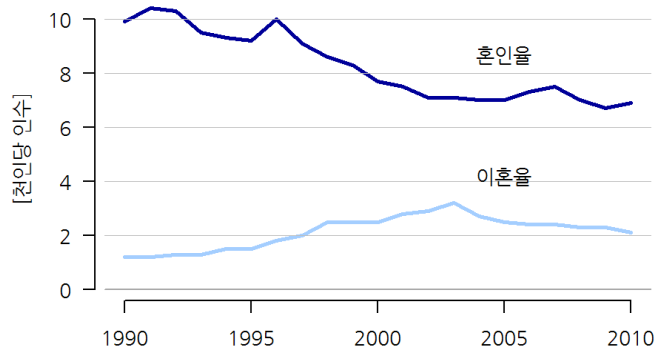


그림 1.4-3 혼인율 및 이혼율

## 1.5 경제활동 인구 및 고용

표 1.5-1 경제활동별 인구

단위: 천명, %

연도	14/15 세 이상	고용기간 1 주 자료						고용기간 4 주 자료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1962	1,838	862	721	39.2	141	16.4	976						
1963	2,031	896	702	34.6	194	21.7	1,135						
1964	2,109	988	759	36.0	229	23.2	1,121						
1965	2,157	992	788	36.5	204	20.6	1,165						
1966	2,181	998	810	37.1	188	18.8	1,183						
1967	2,463	1,100	924	37.5	177	16.1	1,363						
1968	2,596	1,220	1,033	39.8	186	15.3	1,376						
1969	2,741	1,318	1,123	41.0	195	14.8	1,423						
1970	3,039	1,450	1,257	41.4	193	13.3	1,589						
1971	3,494	1,769	1,576	45.1	194	10.9	1,725						
1972	3,816	1,812	1,619	42.4	194	10.7	2,003						
1973	4,201	2,012	1,811	43.1	200	10.0	2,190						
1974	4,307	1,981	1,755	40.7	226	11.4	2,326						
1975	4,752	2,248	1,998	42.1	249	11.1	2,504						
1976	4,880	2,257	1,993	40.8	264	11.7	2,623						
1977	5,135	2,389	2,153	41.9	236	9.9	2,746						
1978	5,350	2,480	2,309	43.2	171	6.9	2,870						
1979	5,564	2,506	2,297	41.3	209	8.4	3,058						
1980	5,847	2,665	2,391	40.9	274	10.3	3,182						
1981	6,143	2,715	2,461	40.1	254	9.4	3,428						
1982	6,133	2,813	2,569	41.9	244	8.7	3,319						
1983	6,281	2,912	2,665	42.4	246	8.5	3,370						
1984	6,653	3,108	2,856	42.9	252	8.1	3,545						
1985	6,855	3,203	2,926	42.7	277	8.6	3,652						
1986	7,153	3,388	3,130	43.8	258	7.6	3,765						
1987	7,337	3,648	3,404	46.4	244	6.7	3,689						
1988	7,401	3,607	3,415	46.1	192	5.3	3,794						
1989	7,502	4,456	4,271	56.9	186	4.2	3,046						
1990	7,641	4,607	4,424	57.9	183	4.0	3,034						
1991	7,759	4,778	4,618	59.5	160	3.3	2,981						
1992	7,799	4,752	4,598	59.0	155	3.3	3,047						
1993	7,836	4,797	4,631	59.1	167	3.5	3,039						
1994	7,869	4,884	4,749	60.4	136	2.8	2,985						
1995	7,905	4,953	4,823	61.0	129	2.6	2,953						
1996	7,887	4,952	4,830	61.2	122	2.5	2,934						

연도	14/15세 이상 인구	고용기간 1 주 자료						고용기간 4 주 자료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1997	7,891	4,979	4,843	61.4	136	2.7	2,912						
1998	7,908	4,783	4,418	55.9	365	7.6	3,125						
1999	7,944	4,820	4,485	56.5	335	7.0	3,124						
2000	8,015	4,904	4,668	58.2	236	4.8	3,111	4,917	4,668	58.2	250	5.1	3,097
2001	8,042	4,952	4,727	58.8	224	4.5	3,091	4,965	4,727	58.8	237	4.8	3,078
2002	8,038	4,992	4,783	59.5	209	4.2	3,046	4,999	4,783	59.5	216	4.3	3,039
2003	8,027	4,977	4,753	59.2	224	4.5	3,050	4,981	4,753	59.2	228	4.6	3,046
2004	8,039	5,062	4,831	60.1	232	4.6	2,976	5,068	4,831	60.1	237	4.7	2,971
2005	8,115	5,129	4,890	60.3	239	4.7	2,986	5,135	4,890	60.3	246	4.8	2,980
2006	8,161	5,132	4,906	60.1	227	4.4	3,028	5,138	4,906	60.1	232	4.5	3,023
2007	8,187	5,144	4,940	60.3	203	3.9	3,044	5,148	4,940	60.3	207	4.0	3,040
2008	8,258	5,120	4,922	59.6	199	3.9	3,138	5,122	4,922	59.6	201	3.9	3,136
2009	8,322	5,058	4,835	58.1	223	4.4	3,264	5,064	4,835	58.1	228	4.5	3,259
2010	8,384	5,170	4,936	58.9	235	4.5	3,214	5,180	4,936	58.9	244	4.7	3,205

주

1. 고용기간 1 주자료 : 1989년부터 제공됨
2. 고용기간 4 주자료 : 2000년 이후부터 제공되며, 2010년 말 현재 공식실업률을 통계내는 자료로 이용됨
3.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은 1986년 이전은 14세, 그 이후는 15세 이상임
4. 고용률=취업자수/14(15)세 이상 인구\*100 (%)
5.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
6. 각년도 수치 결과는 매분기의 평균임
7. 경제활동인구연보는 연도별로 새로 작성된 추계인구나 인구주택총조사자료 결과 등에 따라 시계열 보정을 하여 발간연도에 따라 과거연도의 자료값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  
 1989년 이후 표본규모가 32,500 가구로 확대되어 변경됨  
 1994년 6월에 새로 작성된 추계인구 기초로 89년 이후 자료 시계열 보정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준으로 작성된 추계인구 기초로 91년 이후 자료에 대해 시계열 보정  
 1997년 7월에 작성된 추계인구 기초로 91년 이후 자료에 대해 시계열 보정  
 1999년 7월에 작성된 추계인구 기초로 91년 이후 자료에 대해 시계열 보정  
 2003년 1월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 보정  
 공식 실업통계 기준을 구직기간 1주→4주로 변경하여 2000년 이후 자료에 대한 시계열 변경
8. 통계청에서 시·도별 자료 제공은 1989년(32,500 표본수로 변경, 교체됨)부터 공표
9. 1989년 이전 자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표로 본 서울변천(2003)을 참조하여 기재

자료출처

1. 1962~1988년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표로 본 서울변천(2003) 참조
2. 1989~2010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고용·노동·인구-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4주/1주 기준)-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Web :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1.5.1 경제활동인구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1989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통계는 「지표로 본 서울변천(2003년)」에 기재된 값으로 작성하였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4세 이상 인구(1986년 이후는 15세 이상)는 1970년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838만여 명으로 2.75배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학생, 군인,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45%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은 60%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 2000-2010년 동안 남성취업자 수는 68천명(2.5%) 증가한 반면, 여성취업자 수는 200천명(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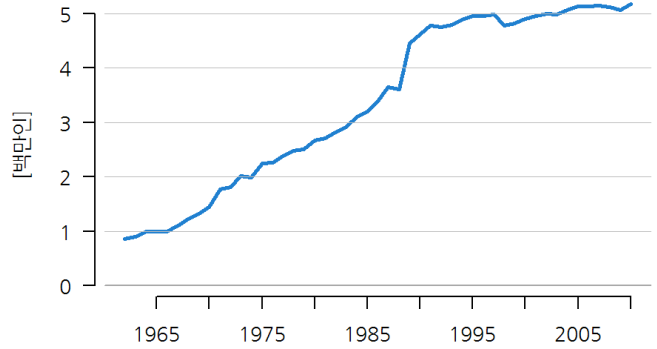


그림 1.5-1 경제활동인구(고용기간 1주 자료)

### 1.5.2 실업률과 고용률

통계청에서는 서울시 실업률 자료를 고용기간이 1주인 자료(1989년부터 제공)와 4주인 자료(2000년부터 제공) 모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식 실업률은 고용기간이 4주인 자료로 명시되므로 2000년 이전에는 고용기간 1주 자료를, 이후에는 고용기간 4주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제로 취업하는 비율은 1960년대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다. 표 1.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률은 1970년 중반까지 두 자리 수를 보였으며, 1964년에는 최대 23.2%까지 올랐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제조업을 비롯한 근대화 사업이 발달하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1977년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수인 9.9%를 기록하였으며, IMF 직전에는 2.5%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IMF 직후인 1998년에 다시 7.6%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고용기간 4주자료 기준)에 들어서는 실업률이 약 4-5%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4.7%이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불경기에 구직을 단념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실망실업자로 인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제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고용률 지표도 병행하여 살펴봐야 한다. 고용률은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지표로서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고용률은 1960-1970년대에 40%대를 유지하고 1997년에 61.4%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IMF 직후 약 55.9%까지 떨어졌다. 이후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0년대에 들어 약 58% -60%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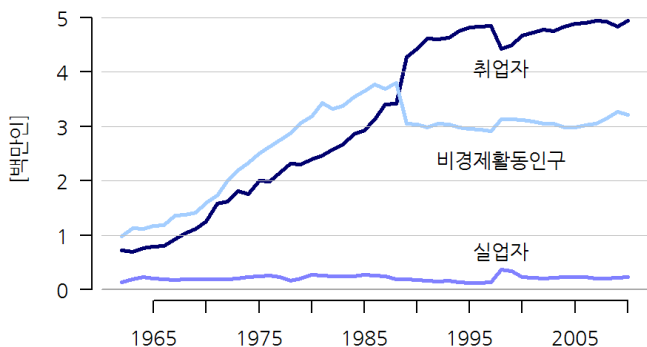


그림 1.5-2 취업자 및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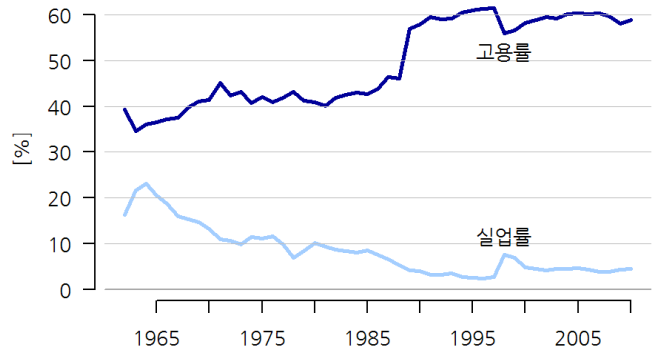


그림 1.5-3 고용률 및 실업률

## 1.6 면적과 인구밀도

### 1.6.1 행정구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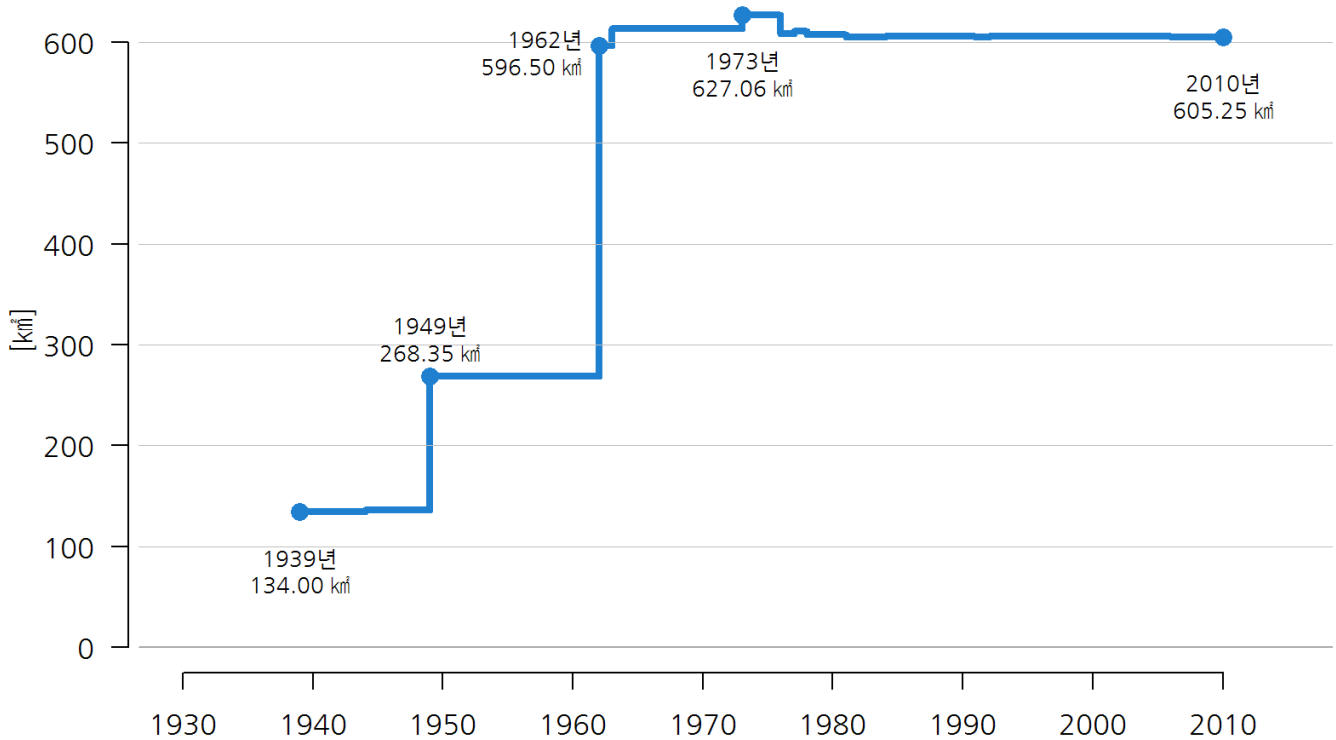


그림 1.6-1 행정구역 면적 변화

조선시대를 통해 이른바 성저십리(城底十里)라고 불리던 도성밖 약 10 리의 범위에 걸쳤던 서울의 행정구역은 일제시대 후반기인 1939년 134 km<sup>2</sup>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일제의 군수산업 기지로 개발된 영등포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결과였다.

해방 후인 1949년에 서울은 서울특별시로 승격, 개칭되었고, 이때 성북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그 면적이 268.35km<sup>2</sup>로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은 1960년대에 급속히 확장된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1963년에 서울의 행정구역은 인근의 경기도 지역까지 대폭 확장되어 전체 면적이 613.04km<sup>2</sup>로 2.3 배 증가하였다. 당시 경기도의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부천군 등에 속해 있던 망우리 일대, 송파구 일대, 창동, 상계동 일대, 마곡, 목동, 화곡 등 강서구 일대, 강남구 일대, 시흥 가리봉, 신림 등 관악구 및 구로구 일대 등이 서울에 새로이 편입되었다.

1973년에도 일부지역의 행정구역 확대로 인하여 서울의 면적은 627.06km<sup>2</sup>로 증가하였는데, 경기도 시흥군의 광명리 일부와 경기도 고양군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 등 일부가 서울에 편입된 결과였다. 그 이후 서울시의 자치구를 새로이 신설, 조정하면서 행정구역이 소폭 조정되었고, 실측에 따라 면적이 재조정되었다. 2010년 말 현재 서울의 면적은 605.25 km<sup>2</sup>에 이르고 있으며, 동일시점의 국토면적(100,033km<sup>2</sup>) 기준으로 볼 때 약 0.6%를 차지한다.



## 1.6.2 인구밀도

표 1.6-1 인구밀도

단위: km<sup>2</sup>, 명, 명/km<sup>2</sup>

연도	인구	면적	인구밀도 (서울시 통계포탈)	면적	인구밀도 (2011년 통계연보)	연도	인구	면적	인구밀도 (서울시 통계포탈)	면적	인구밀도 (2011년 통계연보)
1939	774,286	134	5,778	...	...	1975	6,889,502	627.06	10,987	...	...
1940	935,464	134	6,981	...	...	1976	7,254,958	607.97	11,933	...	...
1941	974,933	134	7,276	...	...	1977	7,525,629	611.24	12,312	...	...
1942	1,114,004	134	8,313	...	...	1978	7,823,195	607.15	12,885	...	...
1943	1,078,178	134	8,046	...	...	1979	8,114,021	607.28	13,361	...	...
1944	947,630	136	6,968	...	...	1980	8,364,379	607.27	13,774	627.06	13,339
1945	901,371	136	6,628	...	...	1981	8,676,037	605.26	14,334	607.06	14,334
1946	1,266,057	136	9,309	...	...	1982	8,916,481	605.33	14,730	605.26	14,730
1947	1,646,902	136	12,110	...	...	1983	9,204,344	605.31	15,206	605.31	15,206
1948	1,707,522	136.05	12,551	...	...	1984	9,501,413	605.38	15,695	605.38	15,695
1949	1,418,025	268.35	5,284	...	...	1985	9,639,110	605.43	15,921	605.43	15,921
1950	1,693,224	268.35	6,310	...	...	1986	9,798,542	605.42	16,185	605.42	16,185
1951	648,432	268.35	2,416	...	...	1987	9,991,089	605.42	16,503	605.42	16,503
1952	716,865	268.35	2,671	...	...	1988	10,286,503	605.4	16,990	605.4	16,990
1953	1,010,416	268.35	3,765	...	...	1989	10,576,794	605.43	17,470	605.43	17,470
1954	1,242,880	268.35	4,632	...	...	1990	10,612,577	605.34	17,532	605.34	17,532
1955	1,574,868	268.35	5,869	...	...	1991	10,904,527	605.33	18,014	605.33	18,014
1956	1,503,865	268.35	5,604	...	...	1992	10,969,862	605.36	18,121	605.36	18,121
1957	1,666,005	268.35	6,208	...	...	1993	10,925,464	605.4	18,047	605.4	18,047
1958	1,756,406	268.35	6,545	...	...	1994	10,798,700	605.43	17,836	605.43	17,836
1959	2,093,969	268.35	7,803	...	...	1995	10,595,943	605.78	17,491	605.78	17,491
1960	2,445,402	268.35	9,113	268.35	9,113	1996	10,469,852	605.58	17,289	605.58	17,289
1961	2,584,952	268.35	9,633	...	...	1997	10,389,057	605.52	17,157	605.52	17,157
1962	2,983,324	596.5	5,001	...	...	1998	10,321,496	605.52	17,046	605.52	17,046
1963	3,254,630	613.04	5,309	...	...	1999	10,321,449	605.52	17,046	605.52	17,046
1964	3,424,385	613.04	5,586	...	...	2000	10,373,234	605.5	17,132	605.5	17,132
1965	3,470,880	613.04	5,662	...	...	2001	10,331,244	605.52	17,062	605.52	17,062
1966	3,793,280	613.04	6,188	...	...	2002	10,280,523	605.52	16,978	605.52	16,978
1967	3,969,218	613.04	6,475	...	...	2003	10,276,968	605.41	16,975	605.41	16,975
1968	4,334,973	613.04	7,071	...	...	2004	10,287,847	605.39	16,994	605.39	16,994
1969	4,776,928	613.04	7,792	...	...	2005	10,297,004	605.4	17,009	605.4	17,009
1970	5,433,198	613.04	8,863	613.04	8,863	2006	10,356,202	605.33	17,108	605.33	17,108
1971	5,850,925	613.04	9,544	...	...	2007	10,421,782	605.25	17,219	605.25	17,219
1972	6,076,143	613.04	9,912	...	...	2008	10,456,034	605.27	17,275	605.27	17,275
1973	6,289,556	627.06	10,030	...	...	2009	10,464,051	605.25	17,289	605.25	17,289
1974	6,541,500	627.06	10,432	...	...	2010	10,575,447	605.25	17,473	605.25	17,473

주

1980~1982년 서울시 면적이 2011년 서울통계연보(책자)와 서울시 통계포털(홈페이지) 다르게 기재됨

자료출처

1.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1
2. 서울시, 통계포털 서울통계-주제별-인구-인구추이(주민등록인구)  
(Web : [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8](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8))

서울의 인구밀도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49년과 1962년 행정구역의 확장에 따라 인구밀도가 전년 대비 각각 42%와 52%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 감소 현상이었을 뿐이었고,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비슷한 613.04 km<sup>2</sup>로 확대되었을 때의 인구밀도는 5,309 명/km<sup>2</sup>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하면서 10년 후인 1973년에 서울의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만 명을 상회하였고, 다시 10년 후인 1983년에는 1.5만 명/km<sup>2</sup>을 돌파하였다. 서울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인구 규모가 정점에 달했던 1992년으로 이 시기의 인구밀도는 1.8만 명/km<sup>2</sup>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인구성장이 정체되면서 서울의 인구밀도가 1.7만 명/km<sup>2</sup>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서울의 인구밀도는 17,473 명/km<sup>2</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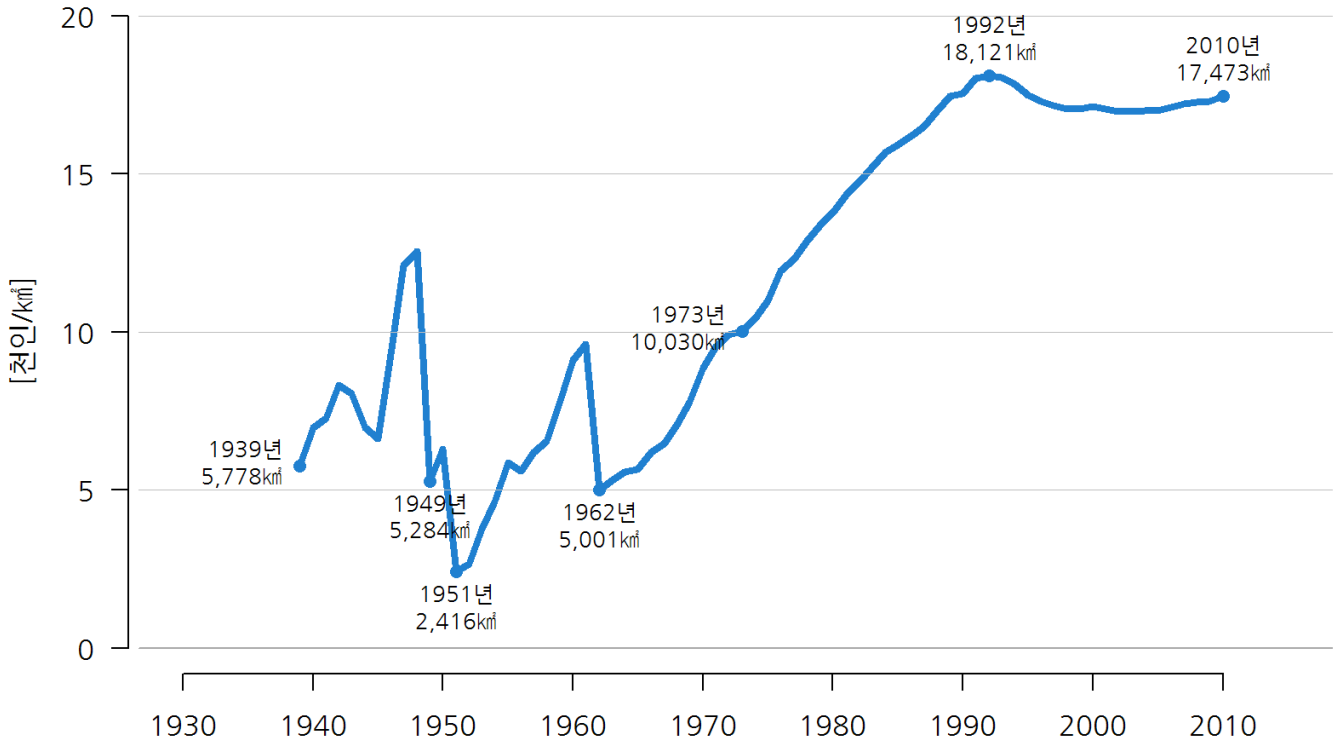


그림 1.6-2 인구밀도 변화 추이

### 1.6.3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

표 1.6-2 인구밀도 세계대도시 비교

단위: 명/km<sup>2</sup>, km<sup>2</sup>, 만명

도시 구분	인구밀도 (인/km <sup>2</sup> )	면적 (km <sup>2</sup> )	기준연도	인구 (만 명)	기준연도
서울	17,025	605	2005	1,030	2005
동경	13,650	622	2005	849	2005
북경	6,996	1,368	2005	953	2005
싱가포르	6,222	699	2005	435	2005
런던	4,777	1,572	2003	751	2006
파리	8,401	763	2006	641	2005
뉴욕	10,483	786	2004	824	2006
로스엔젤레스	3,086	1,290	2006	398	2006

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위해 서울시 자료도 2005년의 인구 및 면적을 제시  
자료출처

1.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개 대도시 현황과 발전전망, 2008
2. 싱가포르, 로스엔젤레스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2개 주요 대도시 통계 현황, 2008

서울의 인구밀도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도시 가운데 하나임을 말해 주는데, 도쿄의 23 개 구부(區割)보다 높으며, 런던, 파리, 뉴욕, LA 와 비교하여도 매우 높다. 표 1.6-2 는 세계 대도시의 인구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밀도 수준은 행정구역 전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이다. 한편, 실제 서울의 행정구역 면적 1/3 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원녹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인구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시가화 면적에 대비한 인구밀도를 산출한 국제 도시 간의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밀도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정구역 면적만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에서 서울은 이미 세계 주요 도시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실제 시가화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서울의 인구밀도 수준은 더욱 조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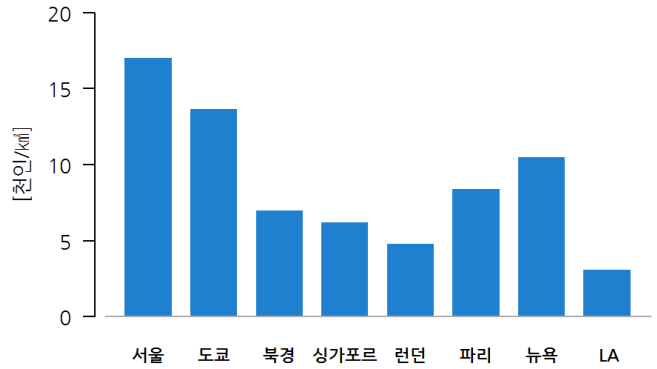


그림 1.6-3 인구밀도 세계대도시 비교